



200년 안에 못 볼 '우주소' 8일 오후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이며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인 '개기월식'이 진행되고 있다. 흑산도에서 촬영한 개기월식은 오후 6시9분부터 7시30분까지 찍은 사진을 이어붙인 것이다. /신안=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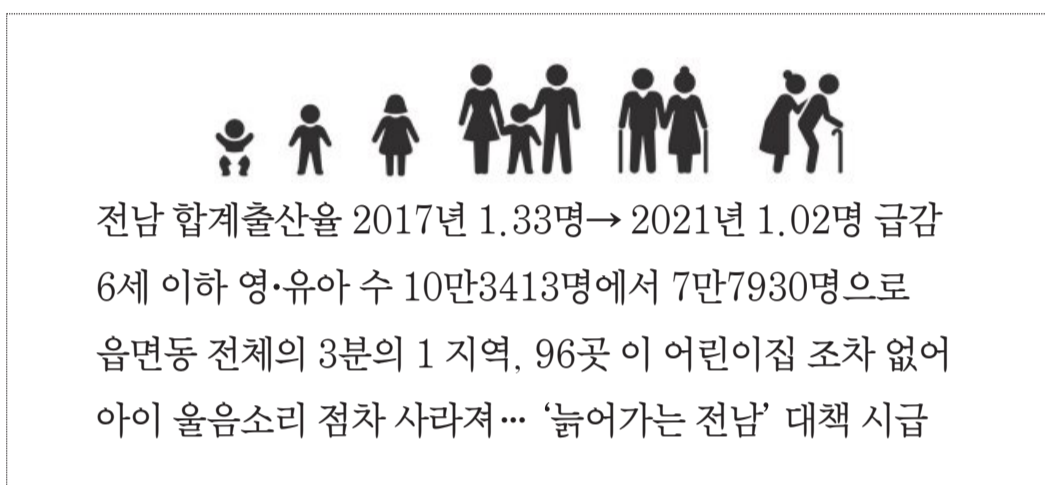
소멸위기 1급 '전남 아이들'

초고령화사회인 전남이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출생아 수마저 급감하고 있다.

최근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4년만에 1.33명에서 1.02명으로, 출생아 수는 1만2354명에서 8430명으로 31%나 줄었다. 2020년 이후 감소세가 커 올 해는 간신히 지켜냈던 합계출산율 1명 선도 깨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육아 연령층인 20~30대의 타 지역 유출이 늘면서 도내 6세 이하 영유아 수도 24%나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등 양육 관련 시설도 사라지면서 보육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보육 대상 아동 수 감소 및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전남 보육 현황을 분석해 '전남여성·가족 브리프 3호: 보육통계로 본 전남 보육 현황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3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4명, 1.23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했으나 2020년 들어 1.15명, 2021년 1.02명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전남도와 각 시·군이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앞다퉀 시행하고 있으나 가입여성(15~49세)의 감소에 따른



출생아 급감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1.0명 아래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보육 대상 연령인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인구수도 역시 2018년 10만명 선이 깨졌다. 영유아 수는 2017년 10만3413명에서 2018년 9만7018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21년에는 7만 7930명을 보였다. 영유아를 키우고 있

는 20~30대가 전남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출생아 못지 않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출생아와 영유아 수의 감소는 어린이집 등 육아 관련 시설의 감소를 초래해 보육 환경을 한층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은 2017년 1241개소에서 2021년 1051개소로, 같은 기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만 3772명에서 4만2241명으로 감소했다. 정원충족

률은 76.5%에서 70.8%로 낮아졌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거주 주택과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이 2017년 대비 2021년 36.8%나 감소했다. 다음으로 민간(-19.1%), 법인·단체 등(-15.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12.5%)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85.1%나 증가했다.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의무 설치, 직장어린이집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도내 297개 읍·면·동 중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수는 2017년 83개 지역(27.9%)에서 2021년 96개 지역(32.3%)으로 증가하게 됐다. 주거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인근 면이나 마을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등 보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중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에 전남도와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며 "출생아와 영유아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읍·면지역의 보육서비스 공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구당 100만원 지원

국힘, 내년 예산안에서 추진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

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런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총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 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2층 전기 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 명에게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한다.

이 밖에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심야 광주 도심 패싸움...외국인 범죄 불안 ▶6면

KIA, 소크라테스와 1년 재계약 ▶18면

주택, 소유 중심 아닌 거주 중심으로 ▶22면

9월 경상수지 16억달러 흑자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지난 9월 전체 경상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원자재 등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90억달러 이상 크게 줄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6억1000만달러(약 2조250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105억1000만달러)보다 88억9000만달러나 감소했다.

올해 들어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24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432억7000만달러 축소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한 달 뒤 5월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 30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약 16억달러 차이로 힘겹게 다시 흑자 문턱을 넘었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4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8월(-44억5000만달러)보다는 약 50억달러 많고,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그러나 1년 전(95억5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흑자액이 90억6000만달러나 감소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